

김영배 전도자

출처: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2016), pp 82-85

(관련어: 김영배, 송헌기독교회, 유동교회, 요츠야선교회)

(2) 유동기독교회(인천 제2교회)



김영배(인천2교회)

유동기독교회는 인천 제2교회로서 김영배 전도자가 선교기지로 개척하여 교회로 발전시켜 1936년 6월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으나 일제의 종교법 시행이후 송헌기독교회에 통합되었다. 송헌성결교회 약력은 1943년 5월에 금곡동교회와 유동교회가 일제탄압에 의해 본교회로 병합하였다고 적고 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일제의 탄압으로 선교후원이 끊긴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까지 겪었던 극난의 시기에 교인 들이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형편이 못되었고, 대부분의 미 자립 소규모 교회들은 탄압을 피해 모임을 폐하고 지하로 숨는 것만이 살길이었다. 이 때문에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 산하의 다수의 교회들은 물론이고 채이스의 기독교회 선교부 산하의 교회들도 모임을 폐하고 지하로 숨어 지내다가 해방 후 재건되었거나 목회자들이 사역을 포기 또는 타 교단으로 옮긴 경우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목회자들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일 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 등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목회를 포기하거나 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김영배 전도자가 선교기지를 세워 교회로 발전시킨 인천유동기독교회(1933년)



김영배 전도자가 개척한 유동(Yanagicho)기독교회 주일학교(1936년)

유동기독교회 담임자였던 김영배 전도자는 1932년부터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을 받으며, 성낙소 목사와 함께 서울기독교회를 섬겼다 <1932년 5월호>. 이후 김영배는 1935년 3월 24일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마이클 쉐리 가족과 함께 송현기독교회 앞에서 촬영된 단체사진에 쉐리의 통역으로 인천에 등장하였다. 이후 김영배는 유동교회의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의 통역으로서 또 한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서신들을 번역하는 사역가로서 활동하였다.



인천 유동기독교회 성경공부반(1937년 4월 11일)
좌측 끝이 김영배 전도자, 그 옆이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여사와 슈멜 양

김영배 전도자는 송현교회와 관련된 기독교학교에서 매주 6일간 하루에 2시간씩 가르치면서 주일에 유동교회에서 두 번 설교하였고, 규모가 큰 일요(주일)학교를 관리하였으며, 또 저녁에는 성서훈련원에서 가르치거나 집회를 인도하는 일들로 바쁘게 일하였다. 또 김영배는 149명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었고, 3명의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앞에 언급된 기독교학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1937년 7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12월호에 따르면, 김영배는 동경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1938년 사역자들 소개에서는 김영배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선교사 웰리는 김영배가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였고, <도쿄 그리스도인>은 그가 월 100엔의 급여를 받는 교사직을 포기하고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